금주의 법구–〈법구경〉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남의 잘못을 찾아내긴 쉬우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긴 어렵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87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4월 11일) 2022년 5월 11일 수요일



5월 8일 조계사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에서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법어를 설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본래 지닌 여래 덕성으로 세상 밝히라”

서울 조계사 등 전국 사찰 5월 8일 봉축법요식 봉행

3년 만에 펼쳐진 대규모 법석
윤석열 당선인 법회 참석 눈길
산재 유가족 · 백신 피해자 등
어려운 이웃들 헌화자로 참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사 봉축법요식에는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박재완 기자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봉축법요식이 서울 종로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코로나19 유행이 수그러들며 일상회복이 이뤄진 올해 봉축법요식은 예전 활기를 되찾아 대규모 법석으로 진행됐다.

조계종은 5월 8일 서울 조계사에서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봉행하고 부처님 오신 뜻을 찬탄했다.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운집한 이날 봉축법요식에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를 증명으로 조계종 원로의장 학산 대원 대종사,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계 인사들의 참석도 이어졌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 주호영 정각회 명예회장 등이 자리했다.

종정 취임 후 첫 봉축법요식 법석에 오른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봉축법어를 통해 “부처님은 구세(救世)의 덕과 무연대비(無緣大悲)를 갖추고 있어 중생의 고통이 있을 때는 구세대비로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비는 베풀수록 구제(救濟)의 덕화는 더욱 넓어지고, 나눌수록 중생을 요익케 하는 이타적 덕행은 깊어진다”며 “무명(無明)은 도를 이루는 바탕이요, 번뇌는 살아있는 부처를 이루는 살림살이이기에 불자 여러분도 삼독(三毒) 속에 갇혀 자기를 잃지 말고 본래부터 지닌 여래의 덕성으로 세상을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부처님오신날 봉축사를 통해 “희망이 꽃피는 환희로움이 산하대지에 가득한 부처님오신날이지만 아직도 세계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며 “지금 인류가 직면한 위기는 존재의 진실을 놓치고, 나를 위해 너를 이용하고 자연을 수단으로 여기면서 함부로 했기 때문이다. 공동체 존재라는 자각과 실천이 위기를 전환시키는 요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5월 8일 기준)도 축사를 통해 부처님 오신 기쁨을 국민들과 나눴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에서 “코로나로 중단됐던 연등 행렬이 3년 만에 다시 전국 곳곳의 거리를 밝혔고, 오늘 봉축 법요식에도 예년처럼 많은 사람이 함께해주셨다. 일상 회복의 희망 속에 맞이하는 부처님오신날이 어느 때보다 기쁘고 뜻깊게 느껴진다”고 봉축했다.

이어 “불교는 종교이기 이전에 우리 삶에 깊이 담겨있는 정신이며 문화이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서로 더 많이 배려하며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축사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 의료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불교계의 각별한 노력이 있었기에 뜻 깊은 오늘의 이 자리도 있다”며 “한국불교는 늘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국난극복을 위해 앞장서 왔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린다”고 불교계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올해 부처님오신날의 봉축표어가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이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고, 공동체를 위해 연대와 책임을 다한다면 매일 매일이 희망으로 꽃 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요식에서는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인 산재 피해자 故 이선호 씨 유족 이재훈 씨, 김두경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장과 소수자 인권 · 동물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전진경 동물권 행동 카라 대표, 이진희 · 조미경 장애여성 공감 대표가 헌화자로 참여해 희망과 자비를 전했다.

이와 함께 이날 법요식에서는 ‘불기 2566년 불자대상’ 수상자인 최민정 쇼트트랙 선수, 함종한 헌정정각동우회장, 구자욱 프로야구 선수, 박대섭 국군예비역불자연합회장, 스롱 피아비 프로당구 선수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연등회 ‘Net心’ 살펴보니 ‘희망’ 키워드 최다 검색

2019년 사상 최다 인원 참여 후 3년만에 열린 2022년 연등회가 온라인상에서 최다 검색 등 트래픽을 기록했다.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를 주제로 리오프닝 시기를 맞아 열린 연등회는 온라인상에서 ‘희망’ 키워드로 회자됐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5월 6일 국내 최대 검색사이트 네이버와 구글의 검색 분석 결과 사상 최다 검색 조회를 기록했다.

먼저 구글트렌드의 ‘연등회’ 키워드 검색에 따르면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의 검색량을 100으로 기준 시 2018년 66, 2019년 46, 2020년 16, 2021년 20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인하여 연등회가 취소된 2021년 대비 약 5배 검색량이 증가했으며 2019년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네이버데이터랩 검색어 트렌드 분석 결과에서도 2022년 5월 첫째 주 검색을 100으로 기준시 2018년 26, 2019년 37, 2020년 10, 2021년 8을 기록했다. 최다인원이 참여한 2019년에 대비해서도 약 2.7배 증가한 수치다.

이에 반해 2021년 언택트 연등회로 조회수 1만여 회를 기록한 연등회 공식 스트리밍의 경우 올해는 오프라인 병행으로 조회수 4000여 회를 기록했다.

3년 만의 연등회에 대한 SNS상에서도 언택트 연등회에 대한 긍정적 반응도 눈길을 끈다.

2021년 대비 5배, 긍정표현 87%
리오프닝 여행 연결한 글도 다수
부처님오신날 검색어 함께 증가

SNS 분석사이트 썸트렌드에 따르면 SNS상 ‘연등회’의 관련 연관어는 긍정적 반응이 전체 반응 중 87%를 차지했다. 2021년에는 긍정 표현이 73% 수준이었다.

연등회에 대한 키워드로는 ‘예쁘다’와 ‘즐기다’ ‘좋다’ 등 현장 반응을 나타내는 단어서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이와 함께 ‘희망’ ‘기쁨’ ‘평화’ 등이 수위권을 차지했다.

‘연등회’에 대한 언급량이 가장 많았던 날은 행사가 진행된 4월 29일로 전년 동기간 대비 언급량에 대한 증감률은 746%로 나타났다.

3년만의 연등회에 부처님오신날에 대한 인터넷 상 언급도 증가했다. 부처님오신날 언급이 가장 많았던 날은 4월 23일로, 전년 동기간 대비 언급량이 72% 증가했다.

긍 · 부정 표현 정도도 긍정적 표현이 75%로 ‘희망’ ‘예쁘다’ ‘환상적’ ‘아름답다’ ‘자비’ 등이 꼽혔다. 다만 2021년 8% 수준이었던 ‘어렵다’와 같은 부정적 언어의 비중은 올해 16.5%로 증가했다. 이는 정권 교체 시점이 5월 부처님오신날 전후로 이뤄진 점과 이에 맞춰 부처님오신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사면 실행 등이 정치권에서 언급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SNS 상에서는 리오프닝 시기에 맞게 서울 볼거리와 함께 연등회를 소개하거나 부처님오신날 사찰을 함께 찾을 수 있는 여행을 소개하는 글들이 대거 올라왔다.

hj9***씨는 “부처님, 내년엔 평일에 와주세요”, tjs***씨는 “가정의달 자녀와 함께 서울 1일 나들이코스, 조계사와 연등회 관람”, des***씨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한 땀 한 땀 옷을 지어 입히고 함께 연등회 참여했다” 등을 트위터에 남겼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다음 주 휴간합니다.

